

제2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황해도 출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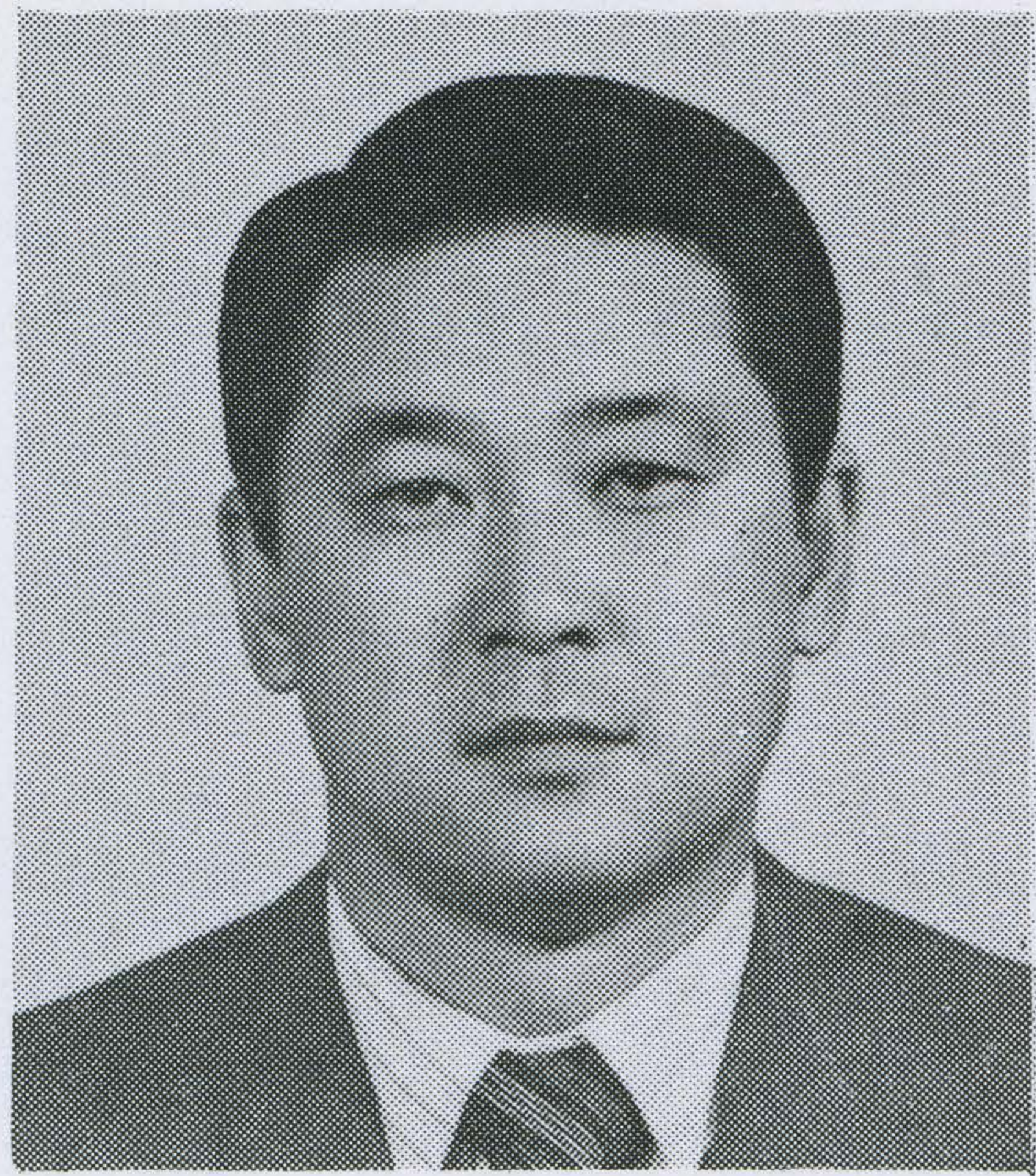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인 오 락 춤



일 시 : 1985. 9. 19 오후 9시20분 ~ 10시

장 소 : 강릉시 강일여고 체육관



人事말씀

黃海道知事
元容九

우리 祖上들의 멋과 얼이 담긴 民俗의 향연인 제 26회 全國民俗藝術경연대회를 由緒깊은 東海 江陵에서 베풀어지게 된데 對하여 眞心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부터 우리 民族은 自然에 歸依하고 아울러 自然을 우리 生活 속에 끌어들이 自然과 同化해 살아오면서 年中 歲時風俗에 맞춰 우리의 예지를 담아 멋이 넘치는 많은 民俗들이 山河各處에서 그 玲瓏한 모습들을 남겨왔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民俗의 祭典은 傳統文化의 主體性 回復과 繼承發展의 次元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生活이 現代化되고 産業化됨에 따라 自然回復과 人間回復의 次元에서도 매우 값진 大會라고 생각합니다.

西海 黃海道는 滅岳山, 九月山과 載寧江, 禮成江의 精氣가 토해낸 農耕生活에서 얻어진 有形 無形의 文化財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南北의 分斷으로 現在 殷栗탈춤을 비롯한 鳳山탈춤, 康翎탈춤, 大同굿, 西道민요 범몰이 海州검무 등 傳統民俗을 保存하고 있으며 이를 繼承發展시키기 위해 全道民이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本大會를 통하여 우리고장 殷栗탈춤의 個性있는 傳統民俗을 감상하시고 原形保存에 힘쓰시 바로 새時代 새歷史를 위한 主體性있는 民族文化의 전승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이 뜻깊은 祭典을 위해 수고해주신 關係官 여러분과 江陵市民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傳統文化에 대한 認識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人事를 가름합니다.

1985年 9月 日



인사말씀

殷栗 탈춤보존회장
장용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2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심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율탈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이후 본격적인 전수활동을 시작한지 어언 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미비한 점은 많지만 저희가 전수시킨 은율탈춤이 여기 강릉에 와서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게 되는데 대해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며 탈춤을 아껴주시는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요번의 연회는 젊은 전수자 및 일반 전수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만큼 패기는 많겠지만 세련된 맛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날을 바라볼 때는 오늘의 연회가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거듭 말해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희 은율탈춤과 함께 하시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연희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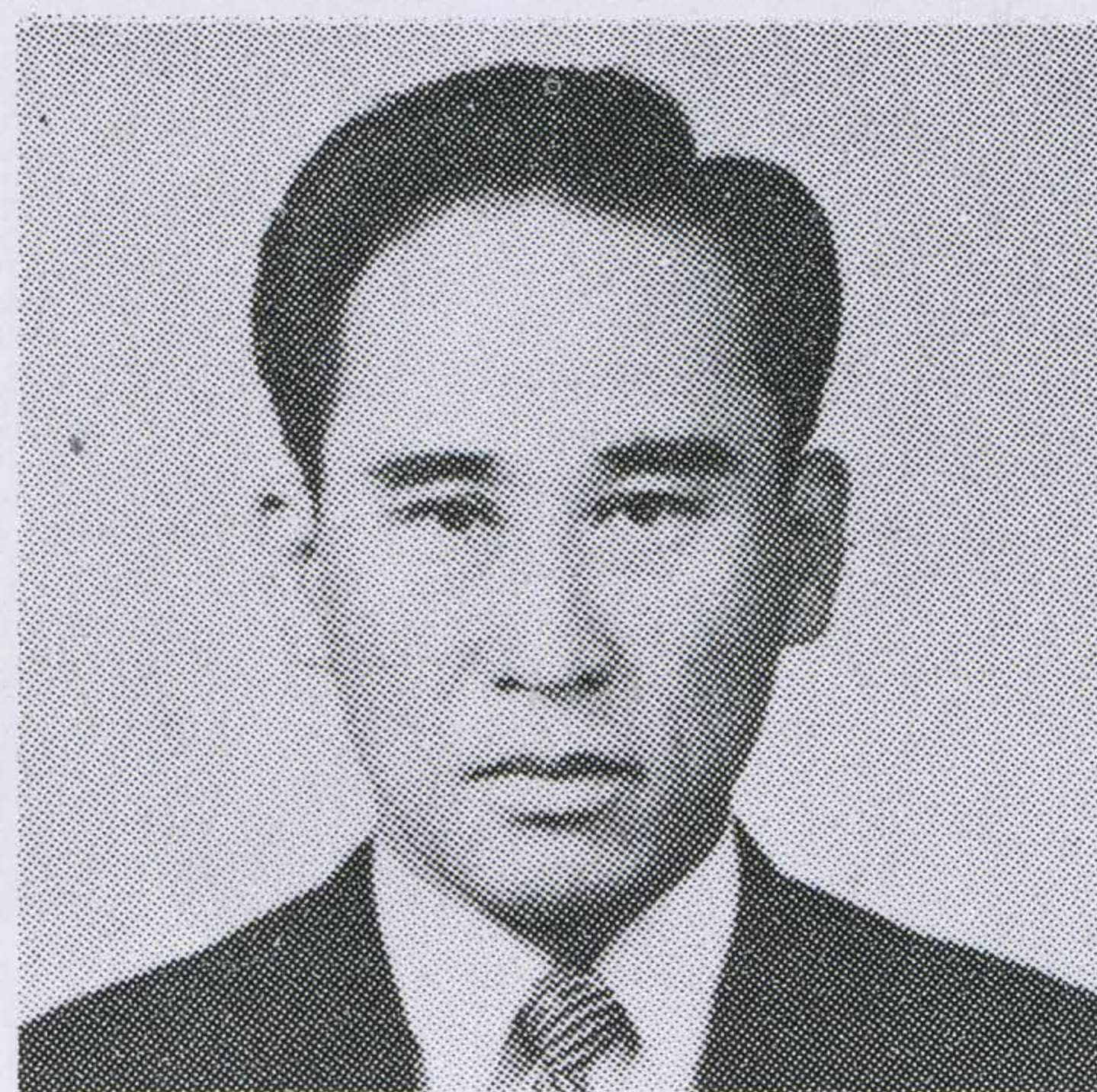
보유자



장용수



김춘신



김영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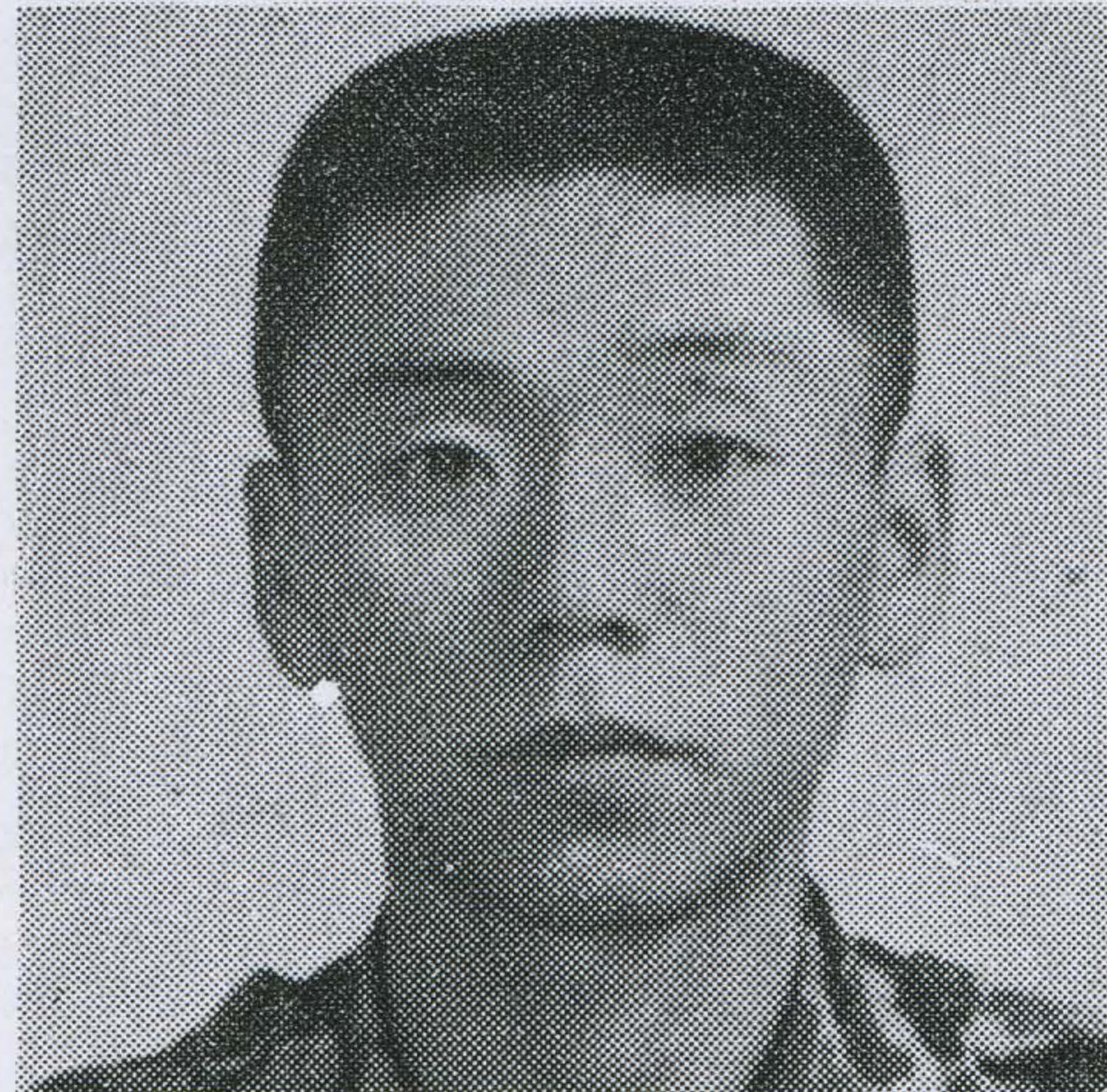
이수자



민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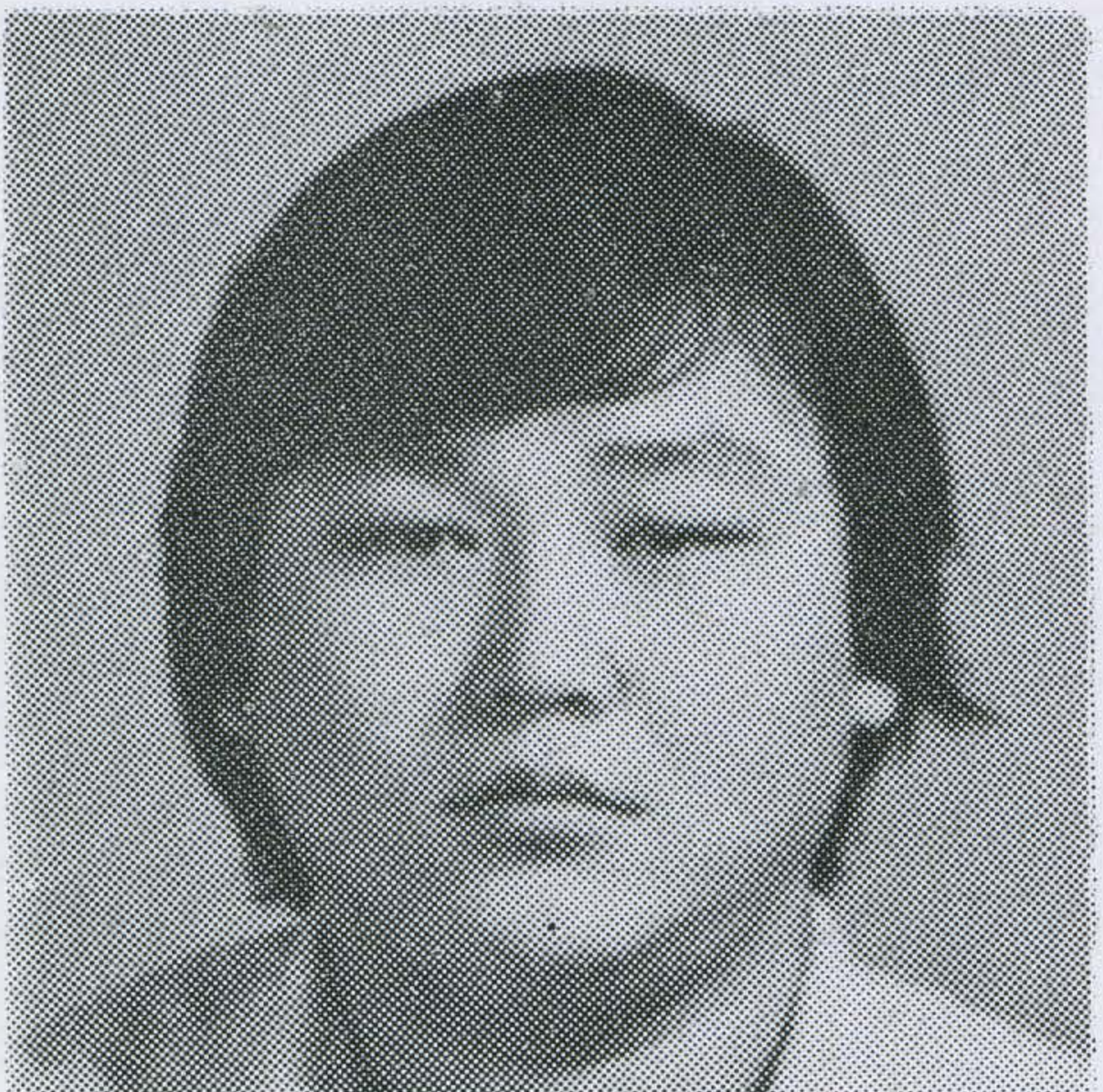
고영진



최흥기

변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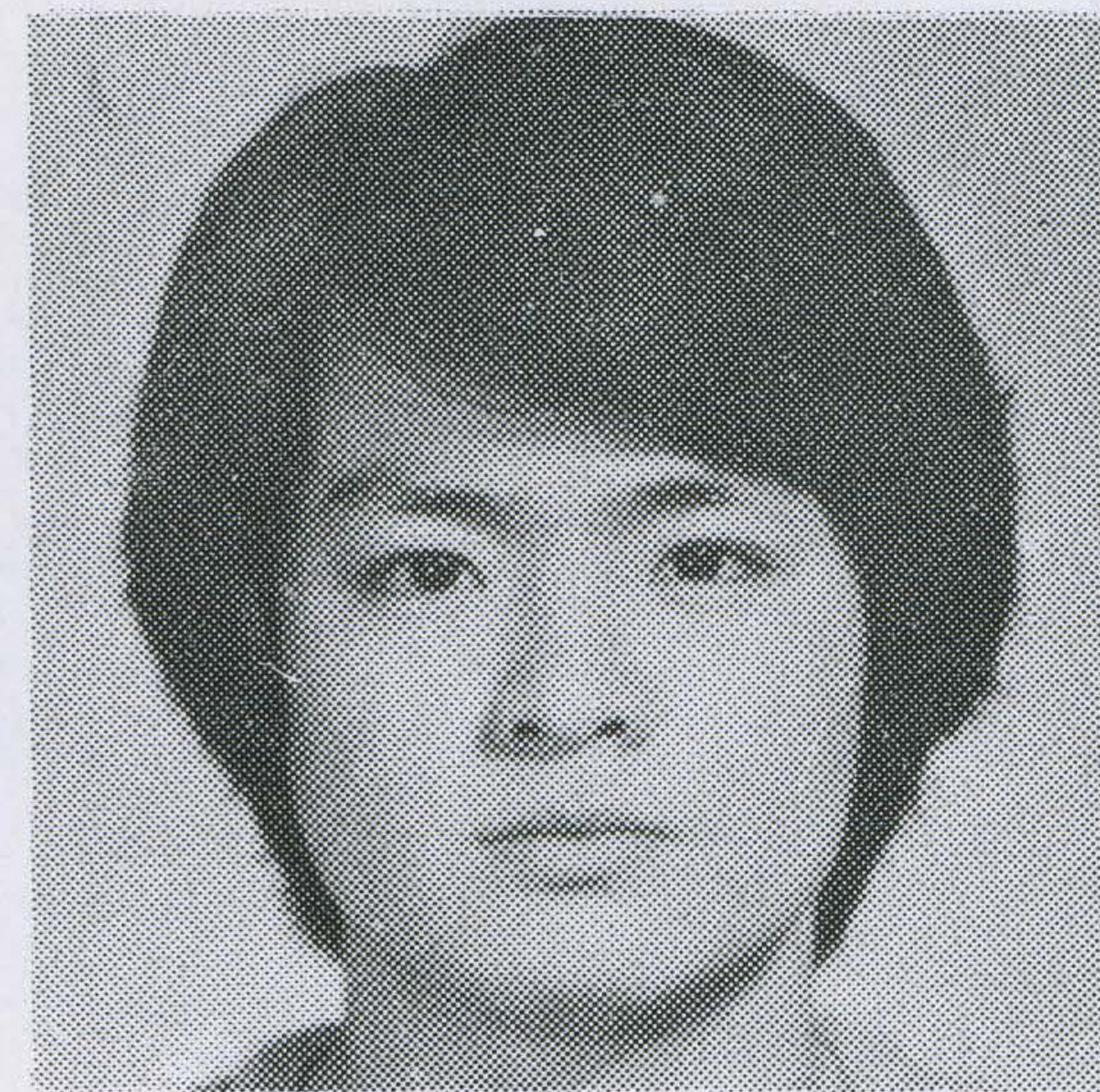
전수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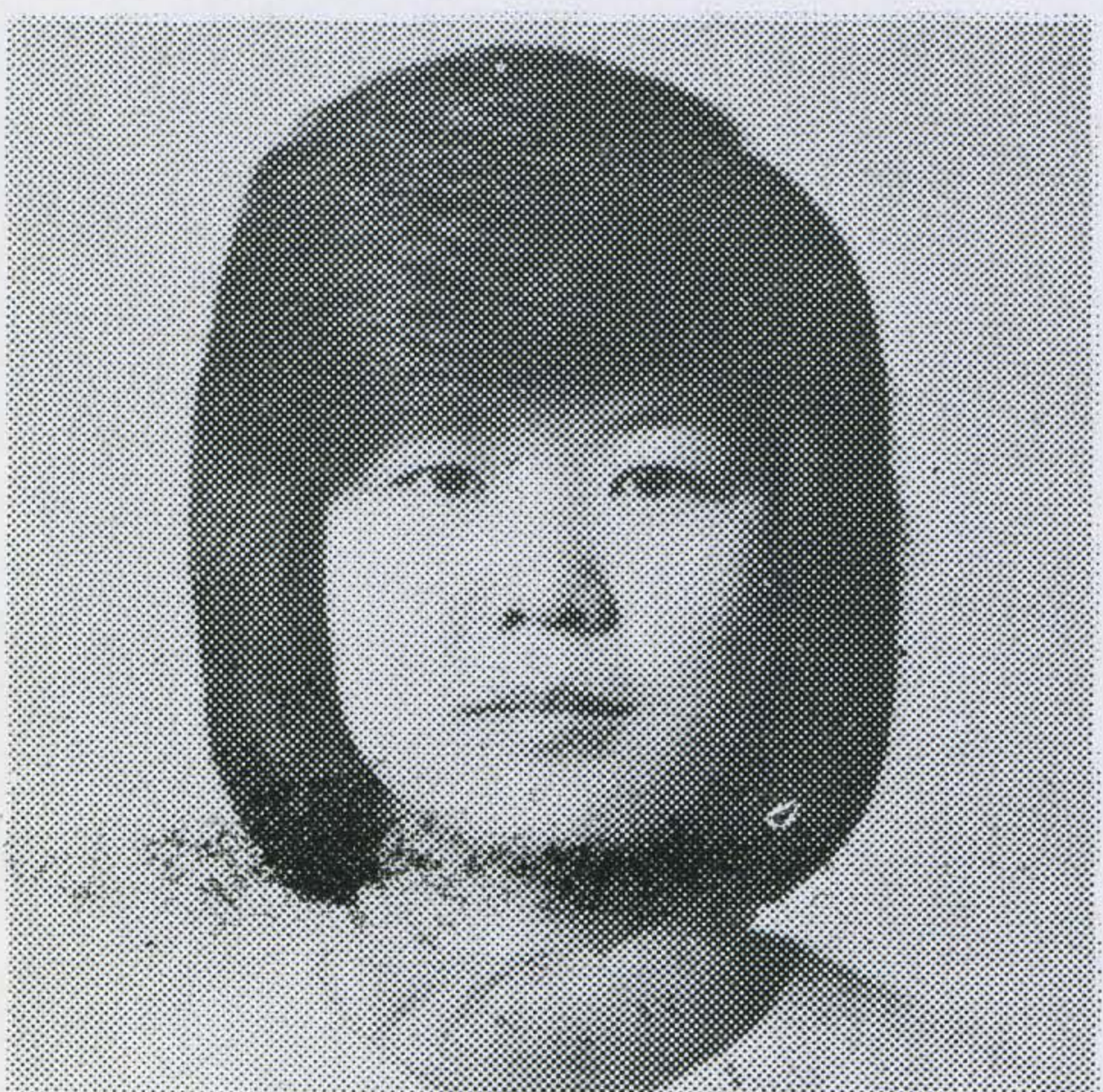
차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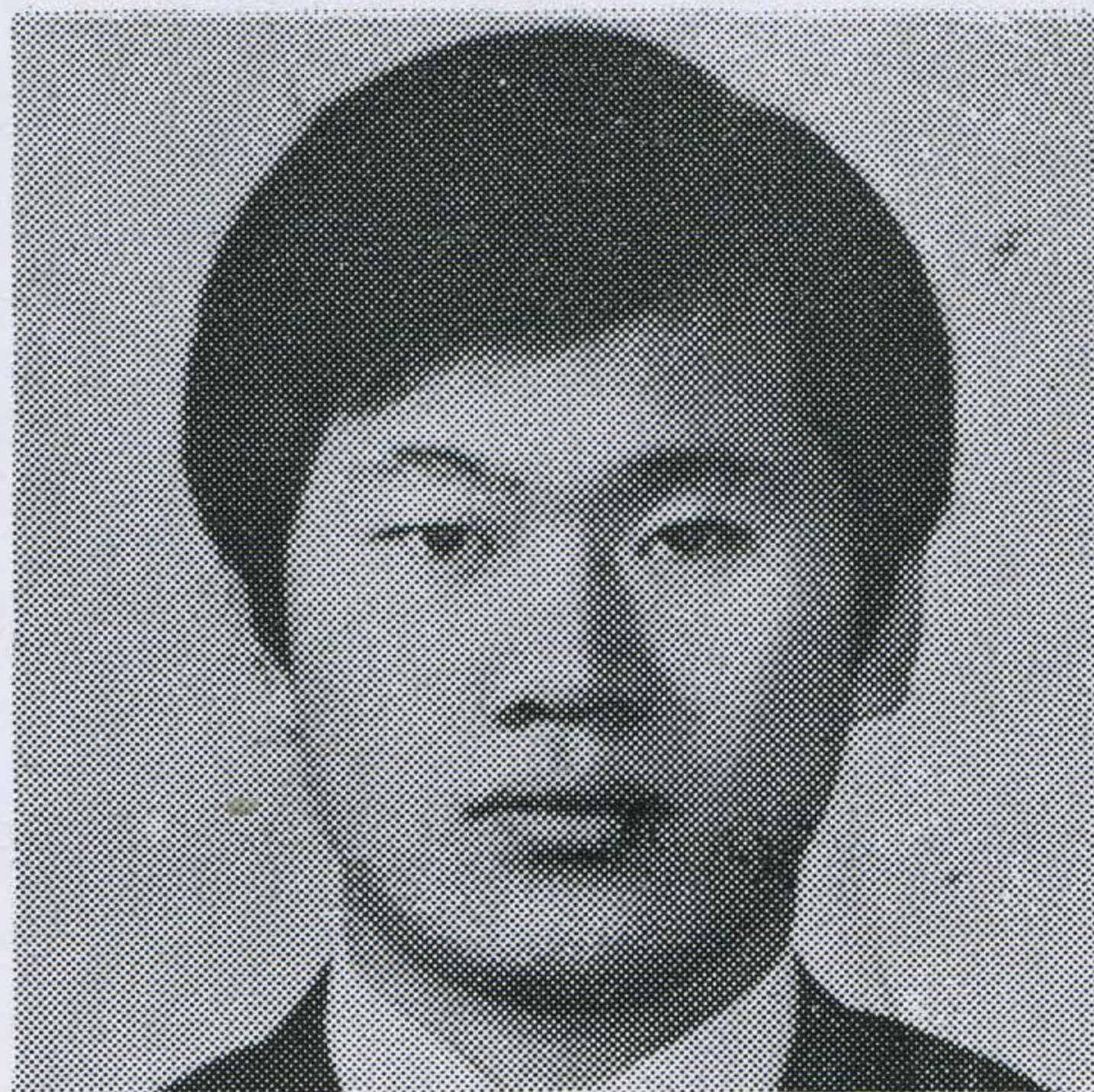
안선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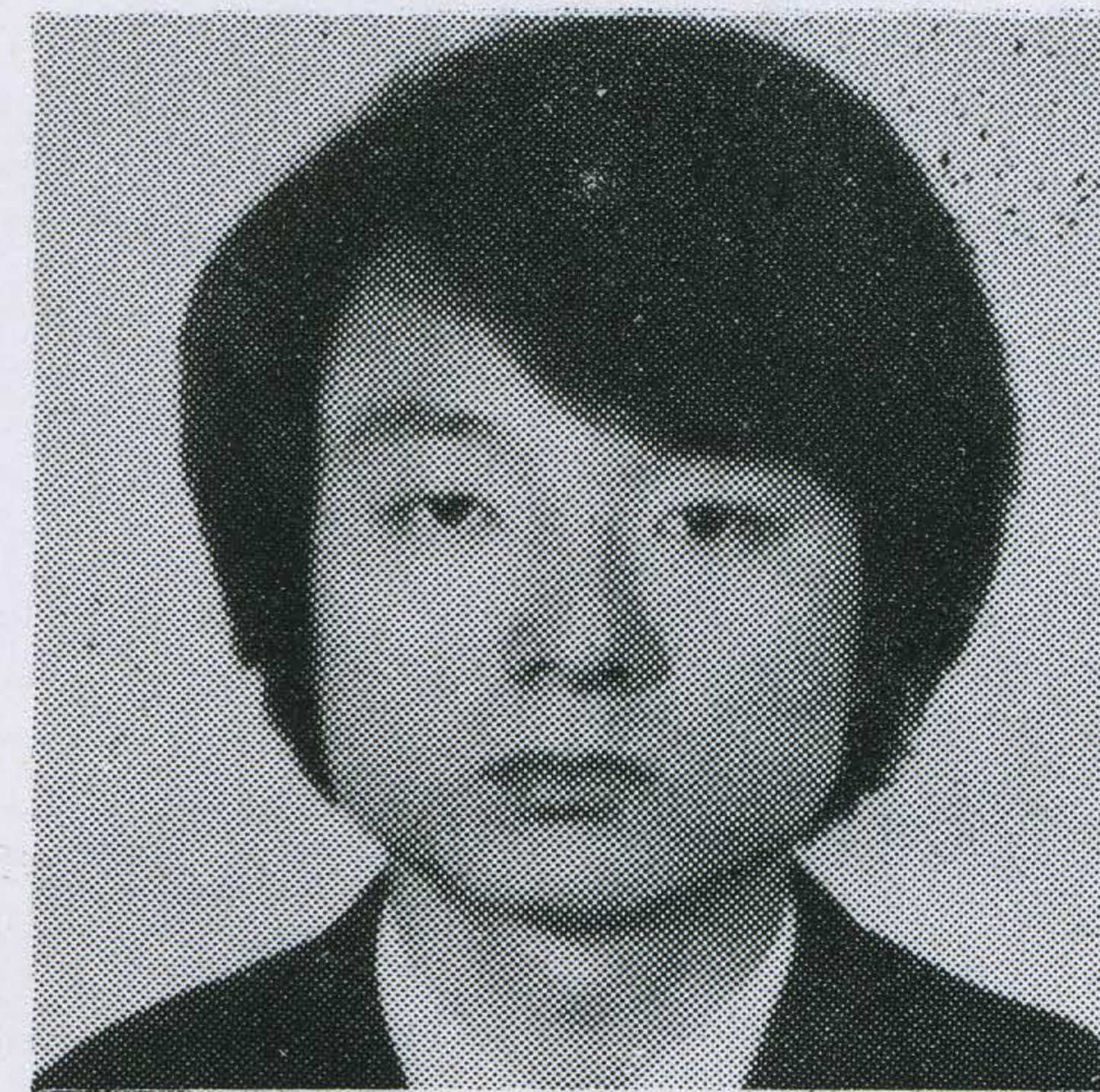
박덕상



남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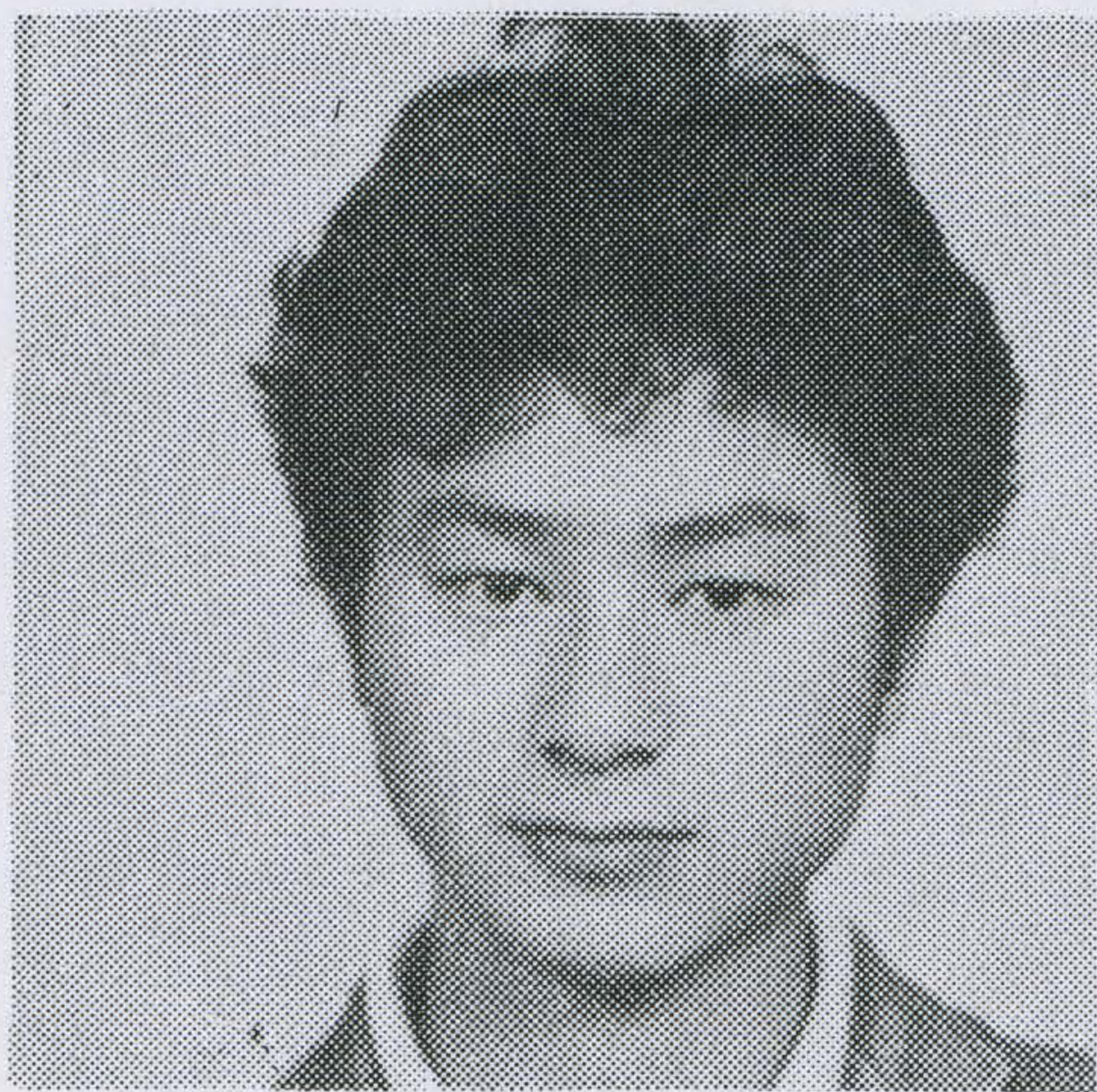
서항영



김윤석



장 경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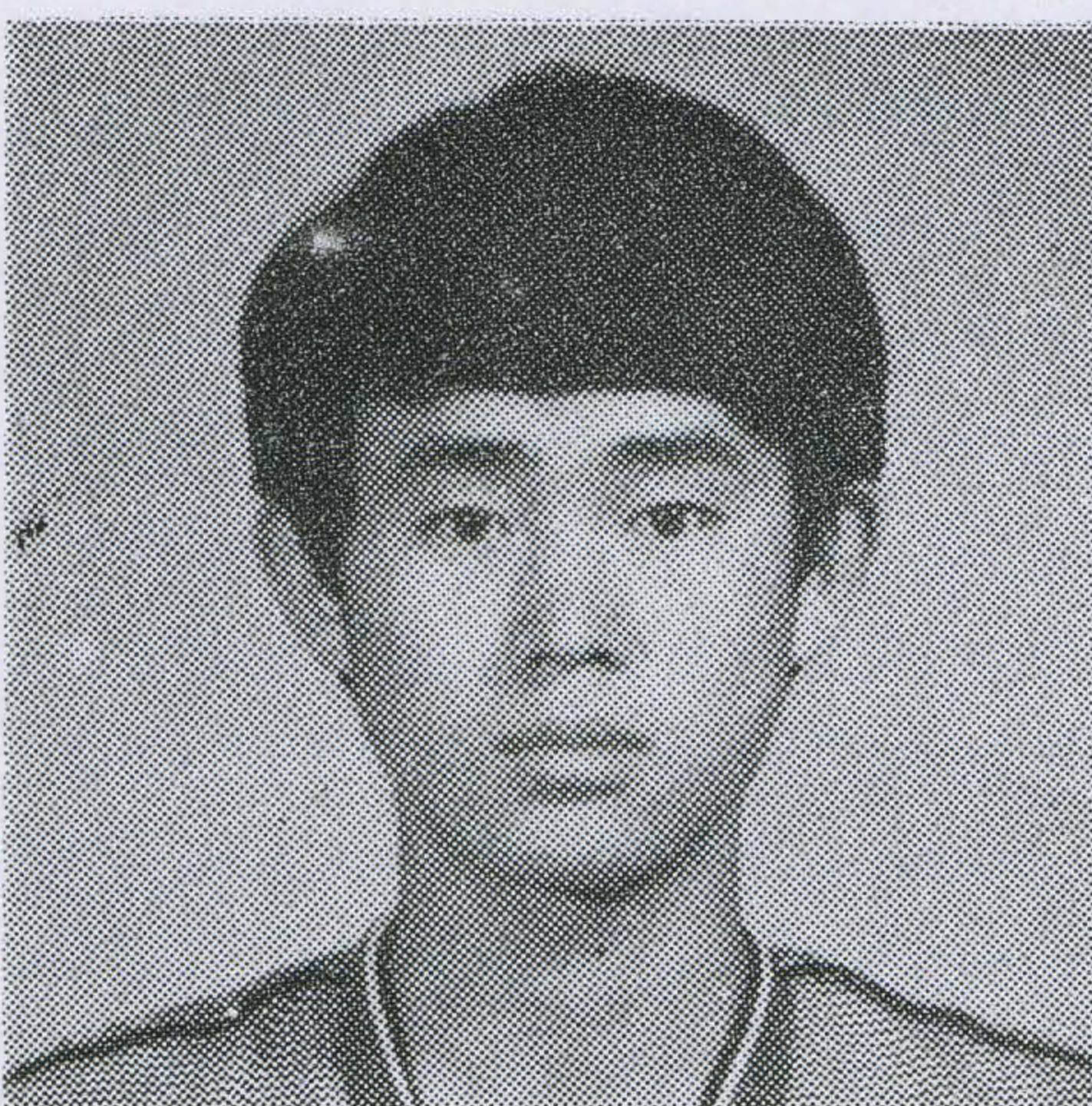
최 정 학

박 일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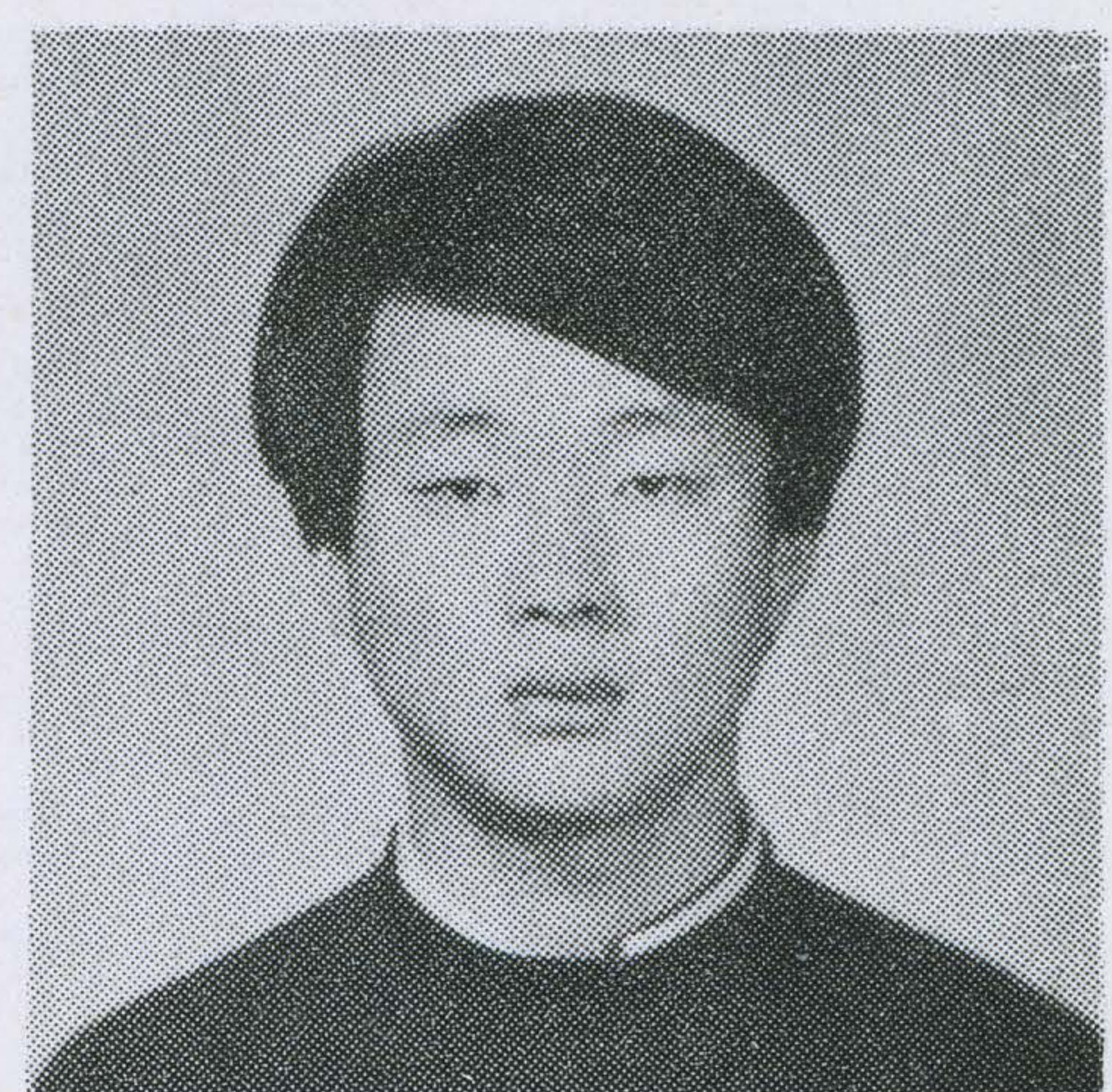
일반전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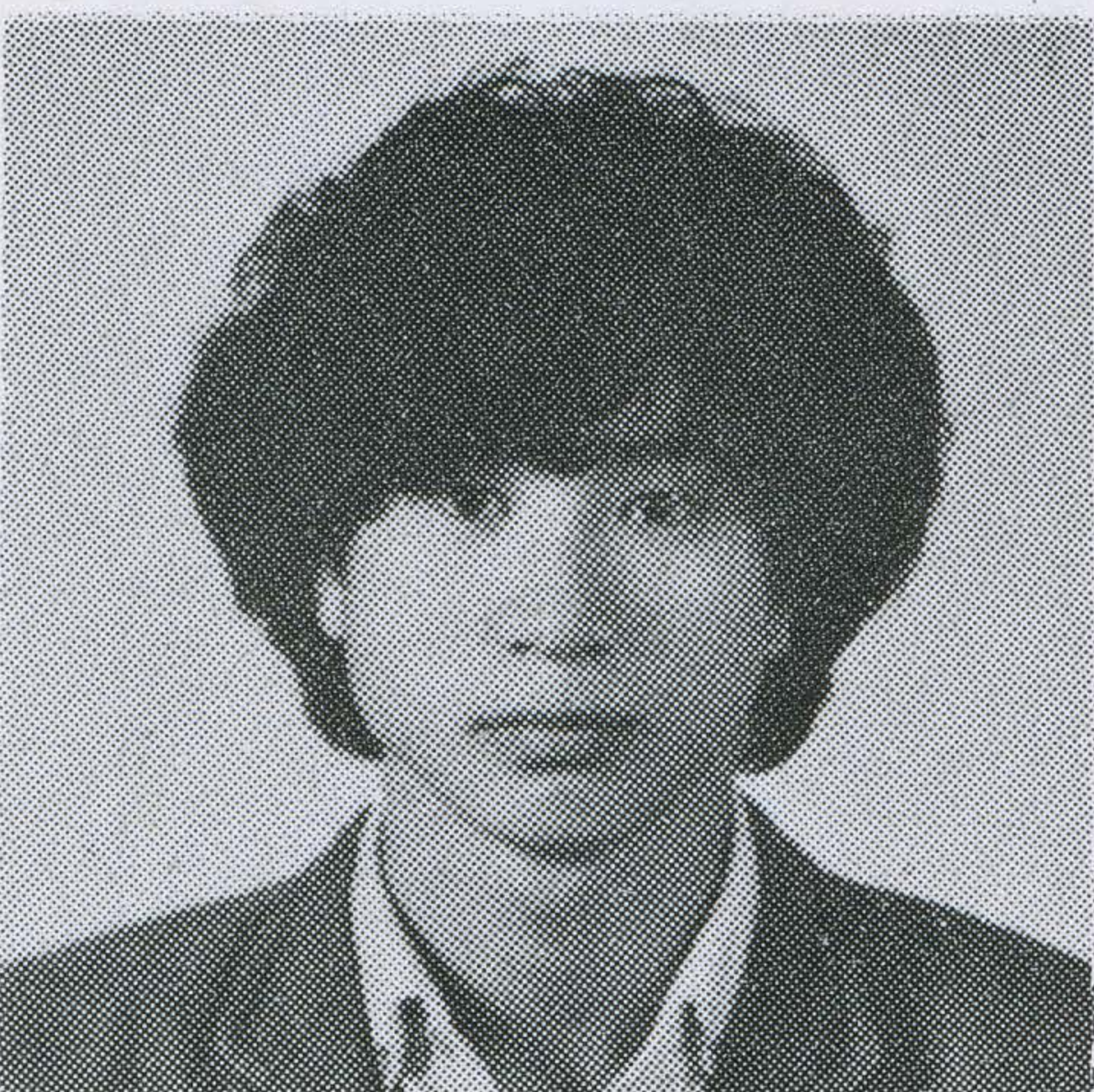
이 종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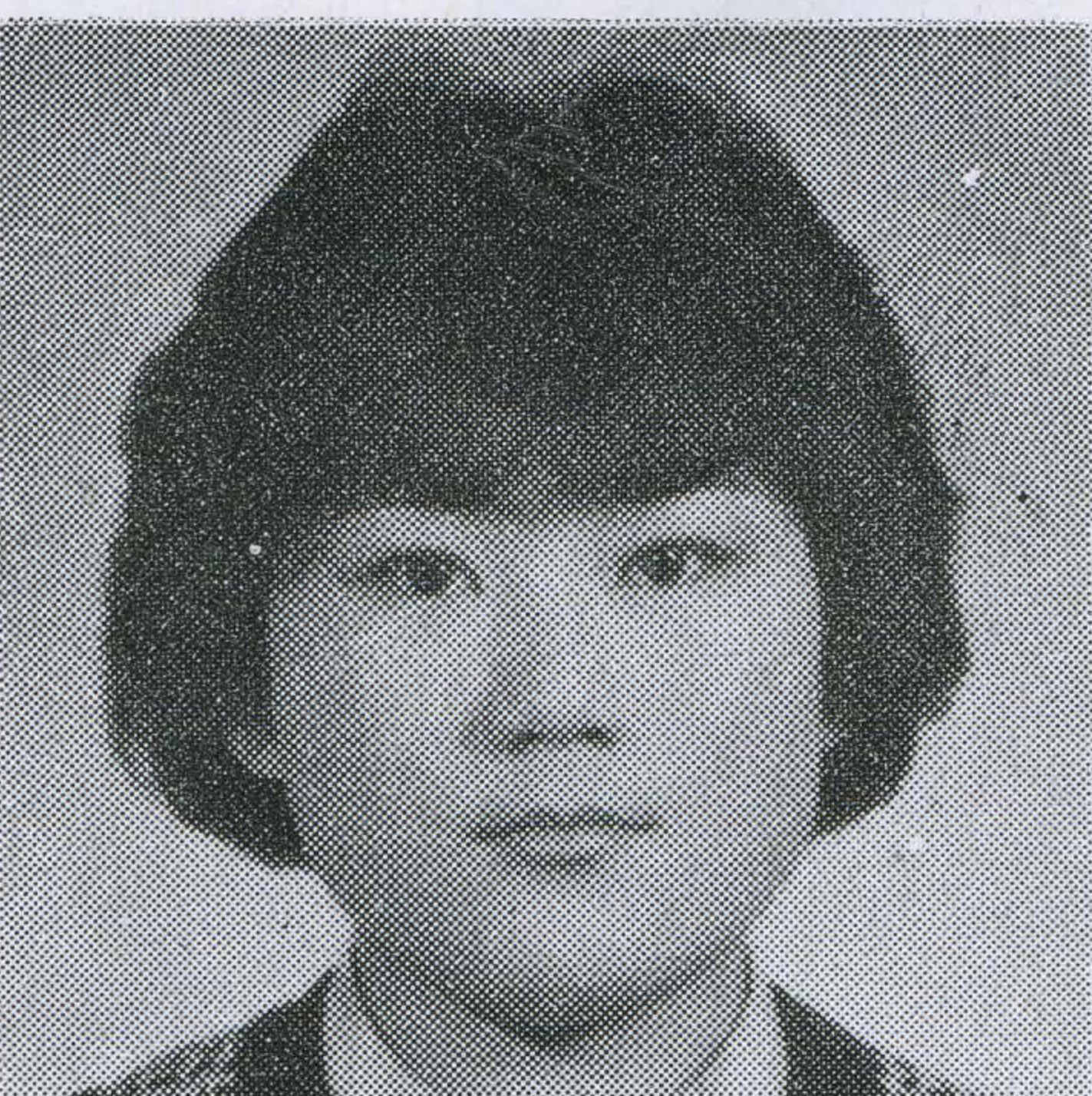
김 창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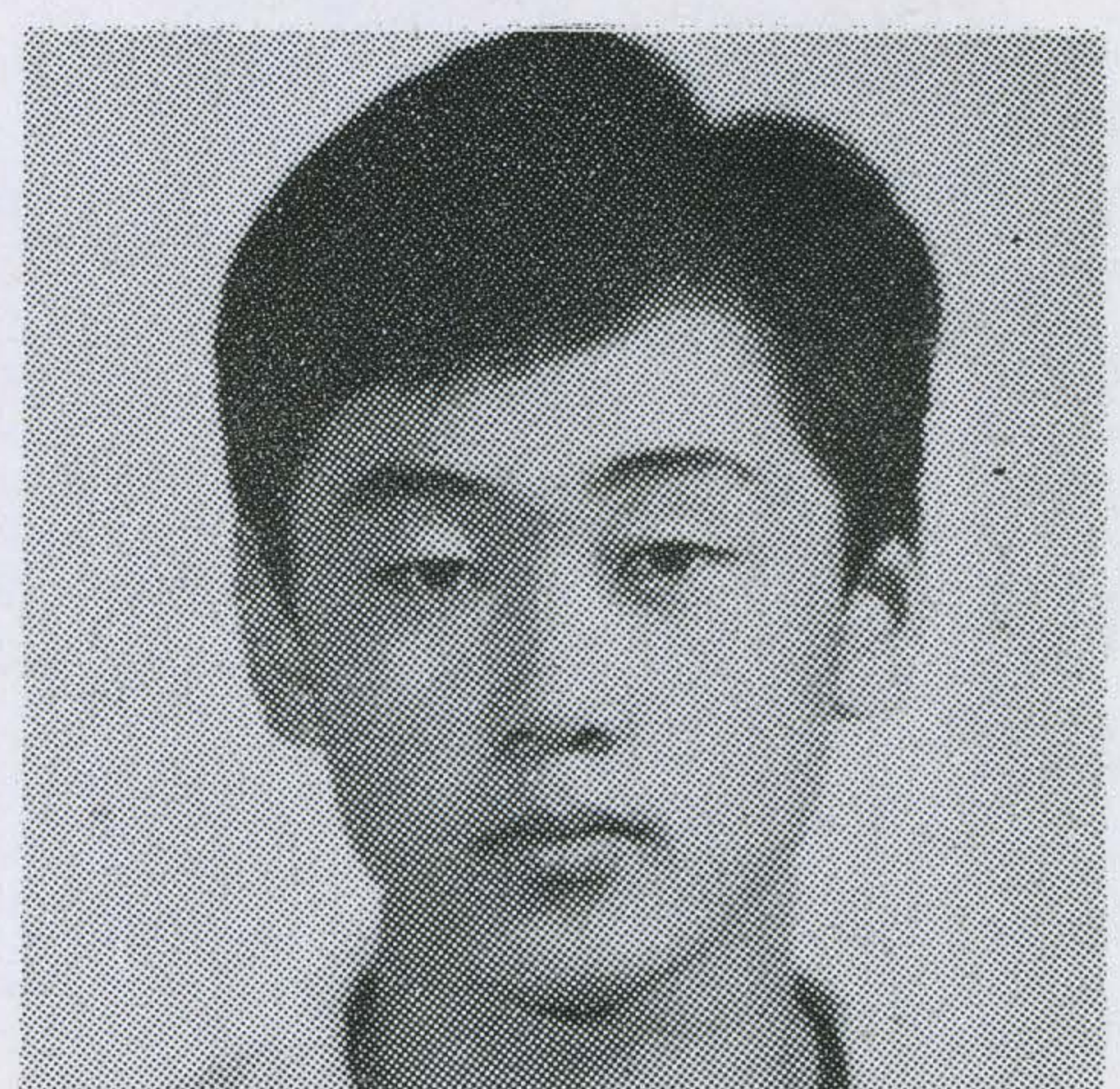
조 용 휘



최 진 학



김 미 경



임 민 수



은울탈춤 演戲解説

黃海道탈춤은 그 臺詞, 衣裳, 舞法等의 類型으로 보아 봉산탈춤型과 해주탈춤型의 두가지로 나눌때 은울탈춤은 西部平野지대의 끝부분에 위치한 봉산탈춤型과 해주탈춤型과의 상호교류와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黃海道탈춤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춤의 유래는 약 2~300年前 어느 반란때 난리를 피했던 사람들이 섬에서 나오면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탈을 쓴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演戲時期는 4월 초파일, 5월 단오, 7월 백중에 円型의 野外舞臺에서 행하여 졌으며 보통 저녁먹고 어두워서 시작하면 자정에야 끝난다.

놀이마당은 전부 여섯마당으로 구성되며 開場이 避邪舞인 사자춤으로 시작하는 것은 강령탈춤과 同一하나 팔목중춤 다음으로 양반 춤이 오는 것은 강령탈춤과 은울탈춤뿐이다.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다른 가면극에서는 노승과장에서 小巫가 취발이 아이를 낳게되는 것이 보통이나 은울탈춤은 양반과장에서 아씨역인 새매시가 원숭이와 음란한 수작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최팔이가 자기아이라고 받아 기른다.

이것은 과제승보다 양반을 모욕하는 대목을 강조하여 양반과 상놈간의 대립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다. 다른 가면극에서는 老僧은 無言이나 은울탈춤에서는 老僧이 國話주를 취하도록 마시고 등장하여 중타령과 眞言을 소리내어 외우는 것이 특색이다.

이 탈춤의 주제는 “避邪의 儀式舞”, “과제승에 대한 調刺”, “兩班에 대한 모욕”, “一夫妻妾의 三角관계가 서민생활”을 다루고 있다. 이 놀이에서 향토적인 소리로 최팔이가 아이를 어루며 부르는 꼬뚝이 타령, 노승골려주는 대꼬타령과 병신 난봉가 영감과 할미광대가 대면할 때의 나니가타령은 별차이가 없다. 여기에 쓰이는 가면은 귀면형의 목탈과 인물탈의 24종류가 쓰여지며 다른 황해도탈과 유사하며 도안은 지방색이 짙게 내포되어 있다. 또한 황해도 탈춤중에 가장 최근에 발굴되었으므로 약간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탈춤이라 하겠다.

은율 탈춤전수관

인천직할시 남구 송의4동 7-6

T. 82-9953